

Ayo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10회차, 고린도후서 9장, 기부에 대한 추가 정보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0, 고린도후서 9, 더 많은 기부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대한 대화와 토론에서 보았듯이, 교회가 돈을 다루는 데
필요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만큼 오늘날에도
민감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최대한의 민감성, 은혜로움, 품위로 다루어질 만합니다
. 재정적 책임과 사람들이 기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상황이 적절하고 완벽해 보일 때조차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바울이 길게 논의한 내용은 모든 사역의 성공에
있어서 계획과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주어진 사역의
성공에 있어서 말입니다.

관대함은 인간에게 타고난 것이 아니므로, 사람들은 주는 법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삶과 봉사에는 항상 긴박감이
있으며, 그것은 삶과 봉사의 본질과 그에 대한 큰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삶에서 다양한 이유로 열정을 갖는 것은 항상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기 어렵고, 고린도인과 베푸는 일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대화를 계속합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일부 학자들이
9장을 8장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고, 9장은 매우, 매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이 사역에 관해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NRSV에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성도에 대한 사역에 관해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9장을 원래는 독립적인 편지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9장은 다양한 문맥적, 문법적 연결로 8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Morey Harris는 그의 뛰어난 New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of the New Testament on 2nd Corinthians에서, 예를 들어, 지금 ~에 관하여라는 문구는 그리스어로 peri-de로, 보통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지만, 여기 9장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그리스 문헌에는 그것이 여기서 기능하는 방식이라는 증거가 없지만, 반대로 그것은 또한 항상 앞서 나오는 것과 긴밀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9-1에서 바울이 남자,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3절을 기대하지만, 그런 다음 지금 여자에 관하여라는 4절은 8-24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그것들이 별개의 장이 아니라 다른 장에서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제안하는 몇 가지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공하며, 그것이 우리가 취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맥락에서 이 구절들의 문학적 무결성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경에서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문법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법적으로만 아니라, 그들은 생각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확신을 표현하지만, 그는 대표단이 파견되는 이유와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 이유를 불안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를 다시 방문할 때 헌금을 준비하여 대표단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라고 교회에 촉구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치욕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므로 1절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NASB가 표현하듯이, 그것은 불필요하고, NRSV가 표현하듯이,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당신에게 쓸 필요가 있는 것을 썼습니다. 저에게는 이유가 많지 않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역에 대해 말했고, 그는 계속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했듯이, 그는 지금 그것들을 씁니다.

아시죠, 신학교에서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포괄적이라는 걸 상기시킬 필요는 없지만, 방금 한 게 바로 그거예요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집에서 나가기 전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걸 상기시킬 필요는 없지만, 방금 한 게 그거예요. 집에서 나갈 때 문을 닫고 잠가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성도들에 대한 사역에 관해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때,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하는지가 왜 놀라운 일일까요? 글썄요, 그 때문에 8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가 방금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그저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킬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바울이 사용하는 수사적 기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건너될 때 마비라고 부르는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작가와 연설자는 주제를 건너될 때 항상 같은 일을 하고, 미래에 다시 언급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독자들이 주제에 지루해지거나 흥미를 잃었거나 주제가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대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런 다음 여기에서 반복은 고린도인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해야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조심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압력이 아닌가?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그것은 미묘한 압력이 아닌가? 그는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싶지 않지만, 그는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젊은 개종자였을 때, 목사님께 가서 “실례합니다, 목사님, 이걸 해도 될까요? 뭘 팔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음, 제가 당신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목사님은 저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제가 당신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지만, 나는 추종자로서 그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글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많은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2절에서 그는, “나는 여러분의 간절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간절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해 자랑스러운 주제입니다. 작년부터 근심이 준비되어 있었고 여러분의 열심이 그들 대부분을 일깨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3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운 것이 이 경우에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요,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와서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확신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압력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글썄요, 저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싶지 않지만, 당신의 간절함을 알고 있고, 당신이 이 일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우리가 와서,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지만, 우리는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와, 와, 바울은 정말 대단한 목사입니다. 그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긴박감을 더합니다. 그는 이전에 고린도인들의 열정을 자랑했고, 사실 그는 그것을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인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고린도인들은 모금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역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해 말했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기부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프로젝트에 기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케도니아인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했던 마케도니아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열정을 여전히 긍정하고 있지만, 그들이 불완전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고린도인 모두의 명예가 걸려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일종의 명예이자 부끄러움입니다.

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썄,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당신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는 참여하려는 열정과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 자랑해 왔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3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보면, 바울은 목적 절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그는 부정, 긍정, 또 다른 부정, 그리고 긍정을 줍니다. 그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인데, 그는 그 구절을 1절과 2절과 연결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보세요, 그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요, 내가 말했듯이, 너희가 달리 준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부끄러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인들에 대한 그의 자랑이 무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의 자랑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이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열망의 예를 사용한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마케도니아인들이 와서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울이 마케도니아인들에게 가서 이것이 고린도인들이 한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조종했다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왔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글썄, 그냥 우리를 조종했잖아.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허무하게 될 것이고, 전에 그들과 있었던 악감정이 새롭게 해결된 것을 감안하면, 다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4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이 통과하지 못한 일로 인해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확신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1절에서처럼 바울은 다시 마비에 의지합니다. 그는 지나칩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도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코린토스 사람들의 수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암시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지중해의 명예로운 수치 협회에서, 고대 지중해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당혹스러움을 의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심각한 존경심 상실을 가져옵니다.

아시다시피, 명예로운 수치심의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당신의 말은 당신의 번트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소위 현대 서구 세계의 사람들과 달리, 수치심, 경멸, 무례, 불명예 또는 공개적인 굴욕의 경험은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이었습니다.

현대 서구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 바울의 사회에서는 수치, 경멸, 무례, 굴욕, 또는 공개적인 굴욕을 경험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나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죽고 싶어했습니다.

사실, 현대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계층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수치를 마주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대에도 그들은 수치, 명예, 수치를 마주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형제들에게 먼저 가서 당신이 약속한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후한 선물로 준비되어 탐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6, 7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관대한 것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어 봅시다. 이제 이것을 말합니다.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지, 인색하게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다음은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기 위한 바울의 호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모금이 완료되도록 미리 대표단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여전히 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바울은 5절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주제를 확장합니다. 이제 그의 관심사는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할 필요성에서 실제로 어떻게 기부가 즐거운 관대함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로 옮겨갑니다.

기쁜 관대함. 그는 관대함의 이점을 설명함으로써 고린도인들의 관대한 베푸는 것을 격려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잠언을 통해 베푸는 것의 이점을 요약합니다. 그는 요점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대함에 대해 말하고, 바울의 생각에 자비의 신학적 언어와 사도에 대한 고린도인의 충성심은 사역의 시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음먹은 대로 베풀고 마지못해나 억지로 베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쁘게 베푸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6절을 보면, 아래로 내려가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베푸는 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 저는 조금씩 돌아올 것입니다. 7절에서, 마음에서 베푸는

한, 8절에서 그는 이유를 말합니다. 8절에서 그는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충분하게 갖는다는 것은 당신이 풍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베푸는 것의 근원이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그는 널리 흠어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며, 그의 의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자 에게 씨를 공급할 것이고 , 먹을 양식이 너희 씨를 공급하고 번식시키며 너희 의의 수확을 증가시킬 것이다. 너희는 모든 일에 부요하여 모든 관대한 일을 할 것이니, 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낳는다. 이 봉사의 사역은 성도들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많은 감사를 통해 넘쳐흐른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12절에서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서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6절에서 15절까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주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는 것의 근원입니다. 둘째, 주는 것은 주는 사람을 풍요롭게 합니다. 셋째, 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끍니다. 넷째, 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섯째. 그러니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논리적이고, 주의 깊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경청하며 관대함에 대한 권고를 구성합니다.

그는 뭐라고 말할까? 보세요, 그는 말했다, 요점은 이거예요. 그리스어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지금 이거, 지금 이거, 또는 의역해서, 글썄요, 이걸 기억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농업 속담과 연결시켜줍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양을 한 무더기 심은 사람이 양을 한 무더기 심고, 사람들에게 양을 백 무더기 심었다고 말하면, 진짜 무더기 하나를 다 먹고 나면, 거짓 무더기 아흔아홉 개를 다 먹을 거라고 하면,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뿌린 대로만 거두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는 이 농업적 은유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지혜 전통과 바울 시대의 그리스-로마 문화에서 모두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마도,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제 말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슬퍼하지만, 그들은 더욱 부유해진다고 말하는 지혜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감추고 오직 한 번만 고통받습니다. 보시다시피, 관대한 사람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사람은 물을 얻습니다. 폴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공리의 자신의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껴서, 아껴서 거둔다.

그래서 관대하게, 당신은 관대하게 거둔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가 관대하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그 단어는 단순히 관대한 선물을 의미한다.

Eulogias -- 그리고, 아시다시피, 꽤 흥미롭죠. 바울의 주는 것에 대한 어휘를 보면, 정말 훌륭해요.

charis를 쓰고, 여기서 그는 eulogias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시다시피, eulogias가 바로 eulogy라는 단어를 얻은 곳입니다. eulogy.

고린도 상황에 적용하면, 추수는 시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베푸는 것은 관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관대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찬사입니다. 그는 청중에게 현재의 마음과 삶에서 영적, 심지어 물질적 축복을 표현하도록 격려합니다. 관대하게 뿌리는 사람은 축복의 원칙에 따라 뿌리고, 이 기준에 따라 거둡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합니다. 신은 기뻐하실 것이고, 신은 오히려 사람의 관대함에 따라 보상하실 것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심든, 당신은 거둔다.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당신에게 줄 것이고, 백 배로 돌려줄 것이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관해서, 그는 당신이 주는 것은 무엇이든 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0을 준다고 해도, 신은 여전히 신실할 거라는 걸 알고 있나요? 그는 당신의 0을 100배로 곱할 거예요. 다만 결과가 다를 뿐이에요. 신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테니까요. 신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실 거예요.

당신이 주는 것에 그는 당신에게 응답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관대하게 베푸세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베푸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울이 8절에서 15절까지 잠언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고린도인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베푸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마음먹은 대로 베푸세요. 둘째, 베푸는 데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즉,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목적인 대로 행해야 합니다. 당신은 마음먹습니다.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은 목적을 사용하며, 여기서 그

단어가 신약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하다. 무언가에 대해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데는 의도성이 필요하다.

관대하게 뿌리는 사람은 축복의 원칙에 따라 뿌리고, 이 근거로 누가복음 6장 38절을 기억하세요. 이 기본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 여기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베푸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줄 것인가는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각 개인이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둘째, 결의가 필요합니다. 즉,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쾌활한 기부자. 우리는 원한 없이 기부해야 합니다. 꽤 흥미롭죠.

바울이 우리가 마지못해 주지 말라고 말할 때,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용어는 신명기 15장 10절의 메아리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관대하게 주어야 하며, 그에게 줄 때 네 마음이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온 세상과 네 모든 사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 이고 ,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기록하기를,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네 성읍이나 땅에 네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네 마음을 굳게 하지 말며, 네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닫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로 이어집니다. 너는 그에게 관대하게 베풀고, 네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바울이 바로 거기서 암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주지 않습니다. 제 말은, 그 단어는 우리가 고통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기의 고통, 루푸스, 루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고통이나 슬픔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거기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당신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은 기쁘게 주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 단어는 중요합니다. 보세요, 들어보세요, 영어 단어 hilarious의 어근은 cheerful로 번역된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보세요, 신은 웃기는 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당신은 웃기게 주는 거예요. 웃기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영어 단어가 중요한가요? 그리고 바울은 축복을 사랑하다(loves), 아가 파이(agapai) 로 대체했습니다 .

알다시피, 칠십인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베푸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베푸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신은 관대함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쁘게 베푸는 자에게 긍정적으로 사랑을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베푸는가입니다. 신은 기쁘게 베푸는 자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쾌활하다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유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유쾌하게 줍니다. 요약하자면, 주는 일은 개인적으로, 과장 없이, 강요 없이, 조작 없이, 즐겁게 해야 합니다.

주는 것은 제약에서가 아니라 확신에서 해야 합니다. 제약에서가 아니라 확신에서.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선행에 넉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기록된 것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십니다.

그는 이 컬렉션의 더 넓은 신학적 기초를 확장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컬렉션의 더 넓은 신학적 기초를 확장합니다. 8절과 9절은 앞의 권고 전체를 이어받아 이제 6절 b에 대한 바울의 해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7c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것은 보기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은 기꺼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은 고린도 사람들의 관대함의 기초이자 모범이 되십니다. 그들의 관대함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바울이 헌금에 대해 다루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동기 부여 개념입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영적, 물질적 혜택을 모두 포괄합니다. 그들의 풍성한 은혜는 아마도 상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확이나 본질적인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맥락에서 관대함을 보인 결과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충분함.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충분하게 하셔서 당신이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선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한 베품의 지속적인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으세요, 기쁘게 베푸는 자들이여, 그들은 덜한 것으로 행할 은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줄 더 많은 것으로 신성하게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인들에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계속 관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베푸는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듯이, 베푸는 것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는 것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는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과 용서하는 것.

둘 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은혜는 주는 것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는 은혜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6절에서 이미 소개한 파종의 농업적 은유로 돌아가 성경적 인용문으로 자신의 요점을 설명합니다. 기록된 대로, 이것은 시편 112편 9절의 인용문을 소개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농부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씨앗을 뿌리듯이 그들의 재산을 뿌립니다. 보시다시피, 시편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 번영하는 자, 은혜롭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 정의롭고 안정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후하게 베푸는 자를 묘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기억됩니다. 그들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편 112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지속되는 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일 뿐만 아니라 인간 베푸는 자의 성품입니다.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

베푸는 자의 의가 계속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의 의는 아마도 고린도 베푸는 자의 도덕적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의로움은 그들의 관대함에서 드러나거나 입증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대함의 증거입니다. 제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의 관대함에 있어서 기초이자 모범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셔서 그들의 만족이 그들 자신을 초월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원을 보충하는 것 이상으로 베푸는 자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바울이 인용한 일반 원칙은 우리가 더 많이 줄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 세상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 존재이며, 우리 자신을 위해 간직하고, 아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얻은 모든 것을 통조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부나 잉여 수입이 하나님의 승인이나 축복의 표시라고 암시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바울의 유대인 동시대인들 사이에서 흔했습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대한 삶의 방식, 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박수를 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거기서 12절에서 15절로 넘어가서 바울이 감사를 표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넘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

이 사역의 시험을 통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것에 순종하고 그들과 다른 모든 사람과 나누는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뛰어난 은혜로 인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게 여기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제물의 유익을 지적하면서 호소를 마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할 때 감사가 생깁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많은 감사의 표현으로 넘쳐나는 목적인데, 바울의 신학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는 이 봉사의 사역을 베푸는 것을 이 봉사의 사역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몇 분 전에 바울이 베푸는 것을 리투르기아 라고 불렀고 , 여기서 리투르기아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봉사, 베푸는 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봉사의 행위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이미 제물과 관련하여 봉사 사역이라는 용어를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미 8장 4절에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투르지아라는 단어는 바울의 서신에서 오직 여기와 빌립보서 2장 17절과 30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것은 봉사의 의미, 봉사의 의미, 베푸는 것이 우리의 봉사의 일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적어도 세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공동체가 행하는 공적 서비스를 의미하거나, 사제적 또는 성스러운 서비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서비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목사, 그리스어 단어 *liturgos* , 목사는 우리 영어 좌표의 근원이며, 저는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전례.

그래서 이 용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람들은 일합니다. 신약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상당한 지위의 리더입니다. 그것은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13절에서 14절까지. 여기서 우리는 13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주어진 증거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헌금에 대한 순종과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관대한 기부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뛰어난 은혜로 인해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바울은 바로 여기 13절에서 14절에서 많은 의미심장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베푸는 것, 성실함, 교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 두 구절에서 많은 용어를 함께 결합합니다. 제 말은, 바울이 13절에서 그의 중심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고린도인들은 주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증거가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데 따르는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고린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 때문에 오히려 매우 행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한 일 때문에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헌금을 마치면 그들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수용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끌 것입니다. 헌금을 수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유대인들과 교제한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마무리된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 말은,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예루살렘의 신자들 사이의 상호 인정, 상호 인정, 그리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고린도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은 고린도 사람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린도인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헌금을 받는 유대 성도들은 그의 이방인 기부자들을 그리워하거나 갈망할 것입니다.

즉, 그것은 믿는 이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대를 보여주고, 그들이 자신을 하나로 보는 교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로마서 15:26-27에서 바울은 헌금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서로와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를 보이거나 연대의 표시로 기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물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자선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련된 교회들의 공통성,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의 표현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것은 연대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제물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뛰어난 은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고린도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알죠. 하지만 바울은 기도와 중보가 그 간격을 메우고 거리를 메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헌금을 완료하도록 격려할 생각입니다.

바울은 베푸는 것에 대한 모든 대화를 어떻게 끝낼까요? 그는 전례적이고 기도적인 폭발로 토론을 끝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그가 암시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한 주제어를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안인 하나님의 선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문맥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그것은 컬렉션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역사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후자는 아마도 확실히 가능할 것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알다시피 형용할 수 없는이라는 형용사는 신약에서만 발견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한 긴 호소의 최고의 동기임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든, 우리는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열정적인 수사학에 의해 행동에 옮겨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웅장한 호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쓴 내용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15:26에서 그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공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마무리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9:6~15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살펴봐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정신, 올바른 정신, 올바른 태도로 주어야 합니다

.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정신으로 줄 때 우리는 씨를 뿌리고 수확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나눔을 위해 내면과 외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더 많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더 많이 충족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은 물질적인 필요만을 충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가득한 스릴 넘치는 영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사에 대해 감사하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0, 고린도후서 9, 베푸는 것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